

**<아가멤논>: 승전 소식 → 귀향 → 계략 → 복수 → 복수의 정당화****\* 바탕 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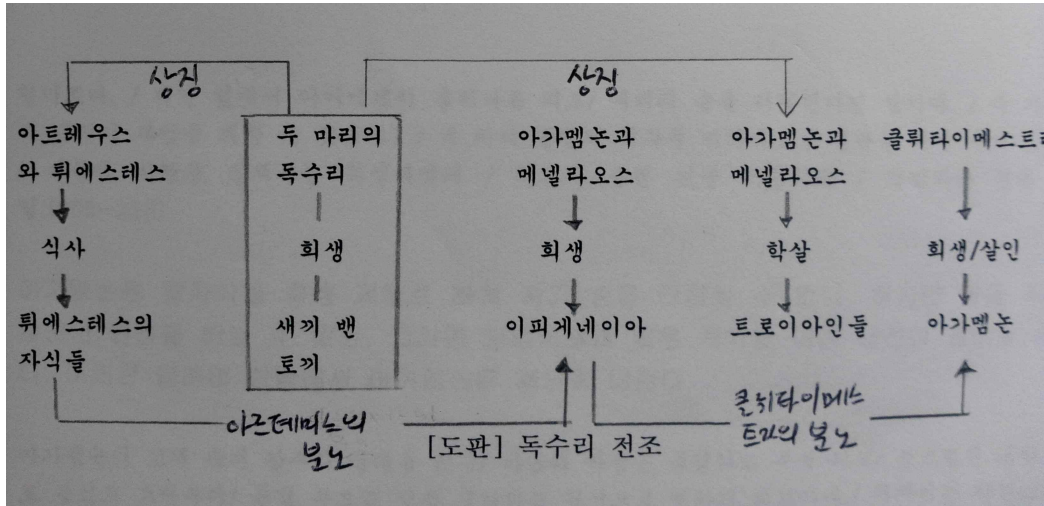
그자[아이기스토스]는 말을 먹이는 아르고스의 맨 안쪽에서 편안히 앉아서 / 아가멤논의 아내를 누차 감언이설로 유혹하려고 했소. / 사실 처음에는 고귀한 클뤼타이르네스트라는 그런 수치스런 짓을 / 거절했소. 그녀는 마음씨가 착했으니깐요. 게다가 그녀 곁에는 / 가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아트레우스의 아들은 트로이아로 떠나며, / 자신의 아내를 지키도록 그에게 엄명을 내려놓았던 것이요. / 그러나 마침내 신들의 운명이 그녀를 그녀의 과멸에다 묶었을 때, / 아이기스토스는 그 가인을 외딴 섬으로 데려가서, / 새들의 먹이와 약탈물이 되도록 그곳에 남겨두었소. 한편 그녀는 / 그자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 서로가 서로를 원했던 것이지요. / 그자는 신들의 신성한 제단 위에 다 넓적다리의 살점들을 수없이 태워드렸고, / 직물이며 황금 같은 장식품들도 수없이 매달아드렸으니, / 자기로서는 감히 바라지도 못하던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지.(<오뒷세이아> 3.263-3,275)

그러자 아이기스토스는 즉시 간계를 생각해내어, /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 스무 명을 뽑아 매복하게 해놓고는, / 궁전의 다른 한쪽에서는 잔치를 준비하도록 명령했소. / 그리고는 말들과 전차들과 함께 백성들의 목자인 아가멤논을 / 초청하러 갔소, 마음속으로는 수치스런 짓을 궁리하면서. 그리하여 / 그자는, 자신의 과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 잔치를 베풀어준 다음 죽여버렸소, 마치 사람들이 구유 앞에서 황소를 / 죽이듯. 그리고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수행하던 전우들도, 아이기스토스의 / 부하들도, 남은 자는 한 명도 없고, 모두 궁전 안에서 죽고 말았소.(4.529-4,537)

그러자 교활한 아이기스토스는 황금 두 탈란톤을 주기로 / 약속하고 데려다 놓은 파수꾼이 망대에서 그대의 형을 보았소. / 그자는 그대의 형이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통과해 열화 같은 / 용맹을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일 년 내내 망을 보았던 것이요.(4권.524-527)

\* 독수리 전조

검은 새와 꼬리 하얀 새가 / 창을 휘두르는 오른 손 방향에서 / 궁전 근처에 나타나 / 모두에게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 새끼를 배서 몸이 무거워 /마지막 주로를 마치지 못한 토끼의 후손을 잡아먹었구나. (115-120)



\* 가정의 관리자 클뤼타이메스트라

기다리고 있구나. 교활하고 무시무시한 가정의 관리자, / 늘 새롭게 떠올라 기억하는 분노, 자식으로 복수하는 분노가 기다리고 있구나. (154-155)

\* 이피게네이아의 희생

원정군이 아울리스에 모였을 때 아가멤논은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하고는 궁술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능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노한 아르테미스는 굶은 날씨를 보내 원정군의 선단이 항해하지 못하게 했다. 여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는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시켜야한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아가멤논은 이피게네이아를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러자 아르테미스 여신은 이피게네이아 대신 사슴 한 마리를 제단에 올려놓고는 그녀를 타우로스 인들에게로 보내서 그곳에서 불멸하게 했다.<퀴프리아>

아가멤논이 고개 숙여 강제의 굴레를 쓰자 / 마음의 바람은 불경하고 부정  
타고 / 성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불었고 그때부터 / 온갖 무모한 짓을 생각하  
는 정신으로 변하게 되었다네. / 무자비한 착란錯亂은 수치스러운 계획으로  
/ 인간들을 대담하게 만드니, 재앙의 시작이로구나.(〈아가멤논〉 218-224)

\* 제우스의 법칙

제우스께선 인간들이 사유의 길로 가게 하셨고, / “고통을 통한 배움”을 / 유  
효한 법칙으로 정하셨도다./ 잠은 찾아오지 않고/ 심장 앞에선 고통을 떠올  
리는 아픔이 물방울처럼 듣고 있으니 / 원치 않는 자에게도 분별은 찾아오기  
마련이라네./ 위엄 있는 조타수 자리에 앉아 계신/ 신들께선 호의를 베푸시  
나 강제적인 듯하구나.(176-183)

\* 정복자의 휘브리스(hybris)

그런데 만약 그들이 도시를 수호하는 정복된 땅의 신들과 / 신들의 성소를  
경배한다면 / 정복하고 나서 다시 정복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익에 눈이  
멀어 약탈해선 안 되는 것을 약탈하려는 / 욕망이 먼저 군대를 사로잡지 않  
을까 두렵소이다. / 집을 향해 귀향하는 구원이 필요하고 / 이중의 경주로에  
서 또 다른 사지四肢를 향해 방향을 돌려야만 하니까요.(338-345)

\* 부 → 포만 → 휘브리스 → 아테

정의의 여신의 위대한 제단을/ 발로 걷어차 사라지게 하는 자에게/ 부富는  
포만을 막는 방벽이 되지 못하리라./ 무자비한 설득이 강요하는구나./ 설득은  
미리 계획하는 파멸의 / 견딜 수 없는 자식이거늘.(382-387)

\* “다른 자의 아내 때문에”

사람들은 애도하며 이 사람은 /숙련된 용사였다고 칭찬하고 /저 사람은 도살  
가운데 용감하게 전사했다고— /**다른 자의 아내 때문에**./ 이렇게 낮은 목소리  
로 외치고 / 반감이 뒤섞인 비탄이 /주된 소송자 아트레우스의 두 아들에게  
다가가는구나. / 하나 다른 이들은 꼴도 좋게 / 트로이아 성벽 주위의 무덤  
을 차지하고 있도다. / 적의 땅이 정복자들을 덮어버렸구나.(445-455)

\* 클뤼타이메스트라의 기만

가능한 빨리 오시라고. 도시가 그분을 욕망하고 있으니까. / 그분이 떠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궁전에서 정숙한 아내를 / 발견하실 겁니다. 그분에게 충성하고 / 악의를 품은 자들은 적대하는 집 지키는 암캐 말이에요. / 다른 모든 일에도 비슷하게 충성한답니다. /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정조의 봉인을 뜯지 않았어요. / 다른 사내와의 쾌락도 비난받을 소문도 알지 못합니다. / 마치 청동을 담그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처럼. / 이런 말로 자랑하는 거예요. 진실로 가득차 있으니 / 고귀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건 수치스런 일이 아니죠.(605-614)

\* 자줏빛 천 장면: 클뤼타이메스트라 대 아가멤논

클뤼. 한데 당신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저에게 말하지 마세요.  
아가. 내 생각을, 알아두시오, 거짓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는 걸.  
클뤼. 두려워하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신들에게 서약하셨을 텐데요?  
아가. 만약 누군가가 그 일을 잘 알아서 그걸 내 의무로 선언했다면.  
클뤼. 당신 생각에 프리아모스가 이런 승리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가. 현란한 천을 밟고 갔을 거라고 확신하오.  
클뤼. 그렇다면 이제 백성들의 비난을 두려워 마세요.  
아가. 하나 그럼에도 백성의 말은 정말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소.  
클뤼. 한데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는 자는 시기할 만한가치도 없는 자예요.  
아가. 싸우려 드는 건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소이다.  
클뤼. 행복한 사람에게는 패배하는 것도 어울려요.  
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클뤼. 제 말 들으세요. 자발적으로 양보하시면 당신은 승리자예요.  
(931-943)

\* 캣산드라의 예언

이오io 불행한 여인이여, 그 짓을 하려는가? / 함께 침대 나눈 남편을 / 욕조 안에서 깨끗이 씻기고 나서— 어찌 최후를 말할 수 있을까? / 당장 올 테니까. 잇따라 손을 내밀어 뺏고 있구나.(1107-1109) .....이게, 보이는 게 뭐지? / 무슨 하데스의 그물인가? / 하나 잠자리 나눈 올가미, 살인죄 나눈 올

가미.(1114-1116) .....보세요. 보세요. 암소(클뤼타이메스트라)로부터 황소  
(아가멤논)를 / 떼어 놓으세요. 옷으로, 검은 뿔이 달린 계략으로 잡아서는 /  
내리치고 있어요. 물이 가득 찬 욕조 안에서 쓰러져요. / 속임수로 살해해요.  
가마솔에서 일어난 살인을 당신께 말하는 거예요.(1125-1129)

\* 재앙의 시작

방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재앙의 시작인 / 미망에 대해 노래 부르고,  
형제의 침대를 짓밟은 자에게 / 차례로 침을 뱉듯 해악을 끼친 침대를  
두고 저주하고 있어요.(1191-1193)

\* 튀에스테스의 아이들

여기 어린아이들이 보이세요? 꿈속 환영의 / 모습을 하고 집 근처에 앉아 있  
잖아요. / 죽은 아이들로 마치 적들의 손에 죽은 것처럼 / 손에는 그들 친족  
이 포식한 살점들을 가득 쥐고 있는데, / 그들 아버가 맞본, 가장 가엾은 짐,  
/ 내장과 창자를 들고 있는 게 분명하게 보이네요. (1217-1222)

\* 오레스테스의 복수

하나 신들께선 우리가 죽더라도 복수해주실 겁니다. / 앞으로 우리를 위해  
보복할 다른 사람이 올 텐데, / 어미를 죽일 자식으로 아버의 원수를 갚을  
거예요. / 이 땅에서 쫓겨난 떠돌이 추방자가 그의 가족을 위해 / 이러한 파  
멸 위에 갖돌을 엮기 위해 돌아올 거예요. (1279-1283)

\* 캣산드라의 결단

이미 일리온의 도시가 고통을 겪을 대로 겪고, / 도시를 정복한 자들도 신들  
의 심판을 받아 / 이렇게 끝장이 나는 것을 보았으니 / 가서 하겠어요. 용감  
하게 죽는 것을 견뎌내겠어요.(1286-1289)

\* 클뤼타이메스트라의 환희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는 헐떡거리며 제 목숨을 내보냈고 / 상처에선

핏줄기를 날카롭게 내뿜으며 / 피 이슬의 검은 소나기로 날 때렸소.  
/ 이삭이 나올 때 제우스가 내려주신 빗물에 / 흠뻑 젖어 기뻐하는  
곡식마냥 꼭 그렇게 기뻐소이다.(1388-1392)

\* 아가멤논 살해 동기 1 2 3

그는 마치 털 많은 양떼 가운데 짐승 하나가 죽기라도 하듯 / 그걸  
특별히 존중하지도 않고 트라키아의 바람을 달래는 / 주문으로 제  
자식을, 산고로 낳은 가장 사랑하는 내 새끼를 / 희생제물로 바쳤는  
데도 말이오.(1415-1418)

여기 그의 아내인 나를 학대하고 트로이아에서 / 크뤼세이스와 다른  
여인들의 마음을 녹인 자가 누워 있소. / 그리고 여기 이 여자, 창으로  
얻은 포로이고 예언자이며 / 그와 잠자리를 함께하고 신탁을 부르는  
가수이며 / 충실한 첩이고, 배 갑판의 돛대를 비벼대는 계집 말이오.  
/ 한데 두 사람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않은 게 아니오. / 이자는  
이렇게 누워 있고 그의 애인은 백조처럼 / 최후의 만가輓歌를  
부르며 죽음을 알리고 나서는 / 여기에 누워 있소. 내게는 그녀가,  
내가 호화롭게 누리는 / 즐거움에다가, 결들임 요리를 날라다준  
셈이오.(1438-1447)

하나 날 아가멤논의 아내라고 생각하지 마오. / 잔인한 만찬 베푼  
아트레우스에게 복수하는 / 오랜 사나운 악령이 / 여기 이 송장의  
아내와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 이자를 죽여 보복했소이다.(1499-  
1503)

**<제주를 바치는 여인들>: 귀향 → 발견 → 기도와 계략 → 복수 → 복수의 정당  
화 → 추방**

그리하여 그자[아이기스토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살해한 뒤, 칠년  
동안이나 / 황금이 많은 뮈케나이를 통치했고, 백성들은 그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 없었소. 그러나 팔 년째 되던 해에 고귀한  
오레스테스가, / 그자의 재앙이 되고자, 아테나이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이름난 아버지를 / 살해한 살부지수인 교활한 아이기스토스를 죽였소.

/ 그러나 그는 그자를 죽이고 나서, 그의 가증스런 어머니와 / 비겁한  
아이기스토스를 위하여 아르고스 인들에게 장례잔치를 베풀어 주었소. (<오  
뒷세이아>3권. 304-310)

\* 오레스테스와 엘렉트라 의 기도

**오레스테스.**

하계下界의 헤르메스여, 아버지의 왕권을 지켜주는 신이시여, /  
이렇게 간청하오니, 제 동맹자와 구원자가 되어주소서. / 추방당했다가  
돌아와서 이 나라에 도착했으니. / 여기 무덤의 언덕 위에 올라서,  
귀기울여 제 말을 들으시라고 / 아버님에게 고하는 바입니다. /  
한 타래의 머리는 저를 길러주신 보답으로 이나코스 강에 바치고/ 다른  
하나는 애도의 공물供物로 아버님에게 바치나이다. / 아버님, 제가  
이곳에 없어서 당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탄식하지도, / 사람들이 당신의  
시신을 나를 때는 손을 내밀지도 못했습니다.(1-9)

**엘렉트라.** 오레스테스가 행운의 도움으로 이곳에 오기를 / 당신에게 기도 드  
립니다. 아버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 제 자신은 어머니 보다 더 절제하고  
/ 보다 더 경건한 행동을 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만,  
아버님, / 적들에게는 당신을 위하여 복수하는 자가 나타나서 / 이번에는  
살인자들이 보복을 당해 죽기를 간청합니다.(138-144)

\* 계략에는 계략을.

그래서 저 유명한 분을 계략으로 살해했으니 / 그들은 계략에 넘어가  
똑같은 올가미를 쓰고 / 죽게 될 것이오. 과거에 결코 거짓말한  
적 없는 /예언자 록시아스 아폴론 왕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입니다.  
(556-559)

\* 클뤼타이메스트라의 본심

유모. 마님이 하인들 앞에선 슬픈 얼굴을 지었지만 / 일어난 일로 얼굴  
아래엔 웃음을 감추었지. / 그 일은 그녀에겐 좋은 것이지만, / 손님들이  
분명하게 전한 소식으로 / 이 집안 사정은 엄청나게 나빠졌어.(737-741)

\* 코러스의 개입

코러스. 그러면 그자가 어떻게 준비하고 오라고 마님이 말했나요?

유모. “어떻게”가 뭔가? 다시 말해주게. 분명하게 알아듣게.

코러스. 호위병들과 함께 오라는 건가요, 아니면 혼자선가요?

유모. 수행하는 창수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어요.

코러스. 이런, 당신은 아주 싫은 주인님께 그 전갈을 알리지 말고 /

기쁜 마음으로 가능한 빨리 가서는 혼자서 오시라고 말하세요. /

소식을 전한 손님들을 놀라게 하지 않게 말예요. 전령의 손은 구부러진  
이야기도 곧게 편다니까요!(766-769)

\* “사내 잡는 도끼”

클뤼. 무슨 일이냐? 집 안에서 무슨 고향을 지르는 게냐?

하인. 죽은 자가 산 자를 죽인다구요.

클뤼. 아이고 나는, 수수께끼 같은 네 말을 이해하겠구나. / 속임수로 죽였더  
니 속임수에 죽는구나. / 누가 당장 사내 잡는 도끼를 가져오너라. / 우리가  
승리할지 패배할지 보자꾸나. /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으니  
까.(885-891)

\* 딜레마 상황

오레스테스. 필라데스, 어찌해야 하지? 어머니를 죽이는 걸 꺼려야 하나?

필라데스. 그러면 록시아스가 전한 퀴토의 신탁과 / 우리가 선언한  
충성 맹세는 앞으로 어떻게 된단 말인가? / 신들이 아니라, 차라리  
모든 사람들은 그대의 적이라고 생각하게.(899-902)

\* 오레스테스의 비극성

클뤼. 내가 널 길렀단다. 그러니 너와 함께 늙고 싶구나.

오레. 내 아버지를 죽이고도 나와 함께 살겠다는 것이오?

클뤼. 운명이 이런 일들의 원인이란다, 내 아들아.(910)

오레. 운명이야말로 이런 죽음을 낳은 것이오.(911)

클뤼. 부모의 저주를 두려워 않는 것이냐, 아들아?

오레. 어머니가 날 낳고는 비참한 불행 가운데 내던졌소.  
 클뤼. 널 내쫓은 게 아니라 동맹 친구의 집으로 보낸 거란다.  
 오레. 자유인의 아들인데도 수치스럽게 팔려간 것이오.  
 클뤼. 그럼 널 주고받은 대가가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오레. 창피해서, 그 대가를 밝혀 당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없소.(917)  
 클뤼. 아니, 공평하게 네 아버지의 어리석은 욕정도 말해야지.(918)  
 오레. 집에 앉아서 밖에서 수고하는 남자를 나무라지 마시오.(919)  
 클뤼. 남편과 떨어져 있다는 건 여자들에겐 고통이란다, 아들아.(920)  
 오레. 남편은 힘들게 수고해 집에 앉아 있는 여자를 먹여 살리오.(921)  
 클뤼. 지금 바로, 아들아, 기어이 네 어머니를 죽이려 하는구나.  
 오레. 당신을 죽이려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오.  
 클뤼타. 보아라, 어머니의 분노한 개들, 복수의 여신들을 조심해라.(924)  
 오레. 하나 이 일을 그르치면 아버지가 보내는 개들은 어떻게 피할까?(925)  
 클뤼. 살아서 무덤에다 대고 쓸데없이 애도의 노랫 부르는 것 같구나.  
 오레. 아버님이 흘린 피가 당신에게 이런 죽음을 결정한 것이다.  
 클뤼. 아 아 나는, 이런 뱀을 낳아 길렀구나.  
 내가 두려워한 꿈은 정말로 참된 예언자였구나.  
 오레. 죽여선 안 되는 사람 죽였으니, 이제 겪어선 안 될 고통 겪어라.  
 (908-930)

\* 복수의 정당화

오레스테스. 내 아버지를 살해하고 / 내 집을 약탈한 이 땅의 참주 한 쌍을  
 보시오. / 당시엔 왕좌에 앉아 위엄이 있었는데, / 지금도 여전히 연인이라  
 오.(973-976)

여러분은 불쌍한 아버님을 묶은 장치를 보시오. / 바로 이것이 두 팔과 두  
 손을 구속했던 것이라오. / (시종들에게) 그것을 펼쳐라. 옆에 빙 둘러서서 /  
 아버지께서 보시게 사람 덮는 옷을 보여드려라. / -내 아버지가 아니라 만  
 물을 내려다보시는 제우스 말이다-언젠가 재판이 열리면 그분이 날 위해 나  
 타나셔서 / 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죽이려 애쓴 일이 옳았다고 증언하실 것이  
 다.(981-988)

이 물건은 대체 뭐라 불러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까? / 짐승을 잡는 것이  
 나, 관 속 송장의 발까지 / 덮어주는 욕조의 장막이라 할까? 아니, 그물이고

올가미지, / 발을 엮어매는 의복으로 불려야 하겠지. (997-1000)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바다 뱀장어나 독사처럼 / 물지 않고 그냥 달  
기만 해도 살을 찌게 만들 텐데 / 그 정도로 그녀가 뻘뻘하고 마음이 사악하  
기 때문 아니겠소?(994-996)

\* 오레스테스의 고통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 정복되어 버린 나는 / 그것에 이끌려가는 중이라  
오. 내 심장 가까이 머무른 공포가 / 분노의 반주에 따라 노래하고 춤추려  
하는구나—(1023-1025)

**<자비로운 여신들>: 탄원(아폴론) → 논쟁 → 탄원(아테나) → 재판과 구원 → 위  
협과 설득 → 변모**

\* 구신 대 신신

코러스. 그 이방인에게 어머니를 죽이라고 신탁을 내렸소?

아폴론.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라고 신탁을 내렸소. 물론이오.

코러스. 그러고 나서 새로이 피를 손에 묻힌 자를 받아주려 나선 거요?

아폴론. 실제로 탄원자로 이 집으로 다가가라고 그에게 지시했소.(205)

코러스. 한데 여기로 그자를 호송한 우리를 비난하는 거요.

아폴론. 당신들이 이 집에 오는 것은 부적절하니까.

코러스. 하나 그 임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시오.

아폴론. 그 명예로운 역할이란 게 뭐요? 그 잘난 특권이나 계속 뽐내  
시오.

코러스. 어머니를 죽인 자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이오.(210)

아폴론. 남편을 제거한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요?

코러스. 그건 같은 혈족에 대한 근친 살해는 아니오.

아폴론. 제우스와 결혼의 여신 헤라의 혼인서약을 / 모욕하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걸로 여기고 있소. / 그런 주장으로 불명예스럽게

퀴프리스(아프로디테)도 내버리다니. / 이 여신에게서 인간들의 가장  
가깝고 소중한 관계가 생겨나는데. /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운명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 정의가 과수를 보니 맹세 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니까.(202-218)

\* 복수의 여신들의 위협

하나 그건 가능하지 않아. 땅 위를 적신 어머니의 피는 /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데, *파파이*, / 축축한 피가 땅바닥에 뿌려져 흡수되었으니까. / 안 돼.  
너는 사지에서 나온 걸쭉한 붉은 액체로 갠야만 한다고. / 살아 있는 네  
몸에서 그것을 꿀꺽 마셔버리게 말이다. / 네놈에게서 사람은 마실 수 없는  
음료로 영양을 섭취하겠어. / 모친 살해죄에 대한 벌을 받도록 / 네 놈을 산  
채로 말려서 아래로 끌고 갈 것이야.(262-269)

\* 아테나 여신의 딜레마 상황

아테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생각하는 어느 인간에게도 / 이 사건은 너무나  
크지만, 극심한 분노를 일으킬 / 살인사건을 내가 판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소. / 특히 그대는 정화되어 무해한 탄원자로 / 관습에 따라 모든 요건을  
갖추고 내 신전에 왔지만(474) / 이자들도 맡은 바 임무가 있으니 물러가게  
할 수 없소.(476) / 그들이 결과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 나중에 상처받은  
자존심에서 독이 나와 / 바닥에 떨어져 이 땅엔 견딜 수 없는 영원한 역병이  
번지게 되리라. / 사정이 이러하니 오레스테스를 남게 하거나. / 보내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어렵소. 어느 경우라도 / 분노를 사게 될 테  
니까. (470-474, 476-482)

\* 운명이 정한 법규

이제 **운명이 정한 법규**가 / 뒤집히게 되리라. 이 모친 살해범이 / 재  
판에서 승리한다면. / 그건 정의를 해치는 일. / 오레스테스가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면 / 모든 인간이 함께 거리낌 없이 제 멋대로 행동하  
리라. / 세월이 지나가도 자식들이 가한 상처로 생긴 / 많은 고통이 /  
또다시 부모를 기다리게 되리라.(490-498)

이런 일로 생겨난 분노가 / 공격하지 않을 테고 / 인간의 모든 행위  
지켜보는 / 여기 박코스 여신도들도 뒤쫓지 않으리라.(499-502)

이런 일로 생겨난 분노가 / 공격하지 않을 테고 / 인간의 모든 행위  
지켜보는 / 여기 박코스의 여신도들도 뒤쫓지 않으리라.(499-502)

\* 아레오파고스 법정의 창설

아테나. 이제 내 법규를 들어라, 아티카의 백성이여. / 처음으로 재판  
에서 유혈 사건을 판결하는 자들이여. / 앞으로도 아이게우스의 백  
성들은 항상 / 이러한 배심원들의 위원회를 가지게 되리라. / 그들이  
앉아 있는 이 언덕, 이곳은 아마존 여전사들의 / 자리이자 야영지였  
소. 그들이 테세우스를 시기하여 / 침공해서는 아크로폴리스에 맞서  
서 / 높은 성벽을 두른 이 새로운 성채를 쌓고 / 아레스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고, 그래서 이 바위 언덕은 / 아레스의 언덕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오. / 이곳 위에서 **밤낮으로 타고난 두려움과 함께**  
**/ 존경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기 못하게 하리라.** /  
시민들 스스로가 더러운 걸 들여와서는 법을 새롭게 뜯어 / 고치지  
않는 한 말이다. 진흙으로 맑은 물을 오염시킨다면 / 그대는 결코 음  
료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 **무정부도 아니고 독재도 아닌 체제를/**  
**유지하며 존경하고,** 도시에서 공포를 완전히/ 추방하지 말라고 시민  
들에게 조언하는 바이다. /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떤 인간  
이 정의를 존중하겠는가? / 이와 같은 존경의 대상을 정의롭게 두려  
워한다면 / 너희들은 이 땅과 도시를 구원할 방법을 가지게 / 되리  
라. 그런 방법은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할 것인데, / 스키타이  
족이나 펠롭스의 땅에서도 그러할 것이리라. / 이득에 좌우되지 않  
고 존경할 만하며/ 화를 잘 내고 잠자는 이들을 지키는 / 이 위원회  
를, 이 땅의 깨어 있는 과수꾼으로 세우노라. / 미래를 위해 내 시민  
들에게 충고하려고 / 이렇게 길게 연설하는 것이다. 이제 그대들은 /  
일어나 투표석을 들고 맹세를 존중하며 / 이 사건을 판결하시오. 이  
것이 나의 말이다.(681-710)

[참고] 복수의 여신들의 조언

무시무시한 것이 좋고 / 두려움이 영혼을 감시하며 / 높이 앉아 있는  
장소가 있다네. / 고통의 압박 아래 / 분별을 배우면 이득이 되리라.  
마음이 빛나는 가운데 크나큰 두려움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어느  
도시와 어느 인간이 똑같이 아직도 정의의 여신을 공경하겠는가?

(517-525)

무정부의 삶도 / 독재 아래 삶도 찬양하지 말지어다. / 비록 여러 방법으로  
여러 영역을 통치하시나 / 신께서 만물 가운데 중용에게/ 우월한 위치를 주  
셨다네. (526-30)

\* 아테나 여신의 입장

지금 내 임무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오. / 나는 오레스테스  
를 위하여 이 투표석을 던질 것이오. /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없기 때문이고  
/ 결혼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진심으로 / 남성만을 인정하며 참된 의미에  
서 아버지의 자식이라오./ 그러므로 여자의 죽음을 더 높이 평가하지 않소. /  
그 여자가 가정의 수호자인 남편을 살해 했으니까./ (아테나는 단지 안에 투  
표석을 떨어뜨린다.) 투표결과가 가부동수로 나오더라도 피고가 승소하게 되  
리라. / 어서 가능한 빨리 단지 안에서 투표석을 꺼내 쏟아주시오. / 배심원  
들 가운데 이 임무를 맡은 자는 말이오.(734-743)

\* 설득의 황홀한 힘

여러분들이 설득의 여신이 지닌 놀랄 만한 힘을 공경하신다면 / 내 말의 애  
무에 황홀하게 될 것이오.(885-886)

\* 집회의 신 제우스의 승리

이분들이 내 나라에 호의를 품고 / 이런 일들을 이루려 하니 / 기뻐하노라.  
그리고 행복하구나. / 이 여신들이 거칠게 내 말을 거절 했을때 / 설득의 여  
신께서 두 눈으로 지켜보시며 혀와 입을 이끌어주셨으니. / 집회의 신이신  
제우스께서 승리하셨도다. / 선의를 위한 내 노력이 영원토록 / 지속하는 승  
리를 거머쥐었도다.(968-975)

참고문헌

김기영, 신화에서 비극으로: 아이스퀼로스의 오레스테이아 삼부작, 문학동네,  
2014.

김기영 옮김, 아이스퀼로스 오레스테이아 삼부작, 을유문화사, 2015.